

전주 효문여중 · 이리중 남녀공학 전환

내년 3월 운영 목표 ... 학교 구성원 자발적 요청에 따라 남녀공학 추진

전주효문여자중학교와 이리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효문여중과 이리중이 2022년 3월을 목표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학생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요구했다.

실제 2021학년도 학급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효문여중의 경우 2학년 40명으로 전년도 4학년 97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리중 역시 2020학년도 5학년 137명이었던 신입생이 올해는 4학년 114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두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필요한 탈의실, 화장실 등 기본시설 개선 지원비를 올

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3월 중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남녀공학 전환 계획 수립 및 남녀공학 전환 행정예고를 추진하고, 해당 학교에서 교명 변경을 추진한다.

이어 오는 7월 중학교 학교군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운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도내 중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

하고,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 등을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두 학교는 학교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진과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 전주효문여중과 이리중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도내 전체 중학교(210교)의 9%인 19개교만이 비공학으로 남게 된다. 지역별로는 전주 1개교, 익산 9개교, 정읍 2개교, 김제 2개교, 진안 2개교, 순창 3개교 등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 위한 민간 보조사업 실무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에 앞장선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층강당에서 민간보조금 지원단체 사업담당자, 부서 업무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보조사업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 예산관리 및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을 유도해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집행 절차 ▲회계처리 기준 ▲카드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질의 응답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해 민간의 교육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은 연극놀이연구소의 '지역 역사인물 연극 만들기' 등 총 72개 사업에 9억 3,581만원을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12일까지 학과별 입학식 진행

코로나19 상황 고려 소규모 대면으로 마련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2021학년도 입학식을 3일부터 12일까지 학과별로 소규모 대면입학식을 진행한다.

66개 학과가 별도의 공간에서 각각 진행하는 올해 입학식은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고려해 12일까지 오리엔테이션과 병행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박맹수 총장과 김윤철, 박은숙 부총장이 학과를 방문해 신입생들의 입학 축하하고 격려한다.

원광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 가운데 올해는 학기 초에 신입생들의 대면수업이 가능해져 학과별 입학식 진행을 결정했다.

학과 입학식에 참석한 박맹수 총장은 "사람중심, 생명 중심의 글로벌 개척대학인 원광대 입학 열렬히 환영한다"며 "대학 구성원 및 지자체와 협력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캠퍼스를 구축하고, 각종 국고지원 사업단을 중심으로 학생중심 교육, 지역과의 상생교육,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혁신을 이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입생 여러분이 일생토록 원광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소확행이 아닌 대확행으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광대는 올해 1학기 수업을 전공 교과목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고, 교양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 경우 1,2학년과 3,4학년으로 나뉘 1~8주차는 1,2학년이 대면, 3,4학년은 비대면, 9주차 이후는 1,2

학년이 비대면, 3,4학년이 대면수업을 받도록 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위해 등교함에 따라 개강 후 첫 2주 동안 행사나 모임 최대한 자제, 불가피한 모든 행사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방과 후 사적 모임 자제, 강의실 방역소독 점검, 건물 출입 관리, 코로나19 단계별 행동지침 및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점검, 기숙사 입소예정자 전수검사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교육문화회관, '성취감 쑥쑥! 독서인증제' 운영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희)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성취감 쑥쑥! 독서인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취감 쑥쑥! 독서인증제는 도서관 이용자 개별 연간 독서 목표를

수립해 도전하는 독서운동이다. 회관 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아동은 80권, 유아·청소년·성인은 40권을 연간 목표로 잡아 목표달성 시마다 단계별 달성 격려품을 증정한다.

또한 보드게임식 독서 미션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미션 완료 시 추가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회관 홈페이지(https://lib.jbc.go.kr/jec)를 참고하거나 독서교육과(☎063-270-169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단편영화제작지원 모집

총 2500만원 규모 제작금액 지원... 15일부터 접수

(사)전주영상위원회는 도내 영화 제작 인력 기반확충 및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을 위한 '2021 전주 영상위원회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편 내외의 단편영화를 선정하며, 총 지원금 규모는 2500만원이다.

지원 조건은 만 15세 이상의 영화 연출자로, 지역 거주자 및 지역 스태프 참여 비율, 지역 소재 영화나 지역 촬영 비율 중 2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1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기존 도내 거주자 및 전북 소재 재(휴)학생에 한정했던 지원 자격을 확장함으로써, 지역 영화문화 사업의 활성화 및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전북지역 영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진행된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매년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다. 접수를 희망하는 연출자는 전



주영상위 홈페이지(www.jjfc.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시나리오를 비롯한 제작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주영상위 이메일(jjfcp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상위 홈페이지(www.jjfc.or.kr)를 참고하거나 전주영상위 사무국 기획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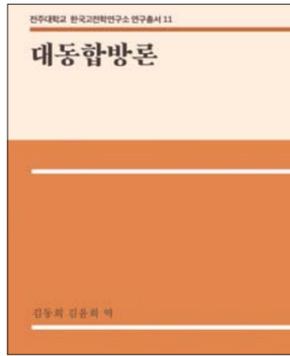
전주대, 연구총서 제11권 '대동합방론' 출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연구총서 제11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총서는 '대동합방론'의 출판과 재판 그리고 전유과정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번역하고 주해한 것이다.

1893년 일본에서 출판된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은 서세동점이 일어나고 있던 19세기 말 국제 상황 속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방 또는 연합의 형태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문명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1898년 캄유웨이와 랑치차오에 의해 상하이 대동역곡서에서 '대동합방신의(大東合邦新義)' 이틀로 다시 출판되기도 했다.

이 책은 일본의 한국 침략행위의 논리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대동아 공영권 논리에 이용된 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번역되지 않아 일제의 침략논리와 구조를 비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HK+연구단은 이 책



의 저자인 다루이도키치가 한일연방 운동을 전개하면서 1907년 한국에 배포한 책자를 함께 수록하고 번역해 관련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HK+연구단 관계자는 "이번 총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유학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자 했는지를 고찰하고 근대 지역 질서와 유교적 사유가 어떻게 접맥될 수 있었는지를 탐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